

데 스 크



조 상 운
편집국장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TV와 접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TV프로그램 중 ‘신박한 정리’가 관심을 끌고 있다. 출연진이 의뢰인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정리하고 행복을 채우는 노하우를 전하며 힐링을 선사하는 집구석 카운슬링 예능 프로그램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 얼마전 막을 내린 TV 예능프로 ‘놀면 뭐하니’의 환불 원정대편에서는 ‘신박기획’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신박’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디자인 사이트 WOW 갤러리의 기사드립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유행하는 기사드

신박한 정리

립으로 인해 왜겔 내에서 금지어가 된 문자 기를 박으로 치환하던 암묵의 물에 따라 ‘신기하다’라는 말을 ‘신박하다’로 바꿔 쓰던 것이 퍼진 것이다. 현재는 단순히 ‘신기하고 뭔가 새롭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신박하다’는 단어를 붙여도 무방할 정도로 다이나믹한 곳으로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 남북 대치 상황, IT 강국, K팝 등에 이어 코로나19에 대한 K방역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우리 정치권의 신박함은 두말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다만 전자의 신박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의 대결양상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치시키는 초유의 사태까지 전개되고 있다. 검찰내부에서는 집단반발 움직임이 보이는 등 예전에 없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여야 정치권의 전쟁(?)통에 신공항문제가 불거졌다. 김해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이 뉴스의 중심에 서며 또 한차례 광풍이 불었다. 해당 지역은 물론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다. 내년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을 향한 전초전이어서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이로인해 공항문제가 핫이슈가 됐다. 덧붙이자면 오는 2025년 문을 열 예정인 울릉도 공항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16개의 공항이 운영된다. 가덕도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까지 포함하면 18개의 공항이 있게 된다.

가덕도신공항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발의했다. 모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내걸고 있다. 동

남권신공항 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 속에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도의회가 나서 갈등해소를 위해 애는 쓰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양분된 도민사회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정치력의 부재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한 동안 수면아래에 있던 해저터널을 통한 서울-제주 고속철 문제까지 재등장했다. 전문가 합동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리기도 했다. 돈만 있으면 공항도 만들고, 해저터널도 뚫고해서 먹고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TV시청자(국민)들은 신박한 내용(정책)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제작자(정치인, 관료)들은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TV속 얘기가 아니다. 코로나19로 가뜰이나 힘든 요즘 ‘신박한 정리’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기인 듯 싶다.

열린마당

돌봄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이유



손 태 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더디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로의 개편은 피할 수 없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는 긴급 문자 알림은 코로나19의 일상화를 보여준다. 재난의 일상은 보육시설·학교 등교를 대면·비대면으로 바뀌었고 돌봄 어려움도 더욱 키웠다. 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 아동이나, 가정 내 돌봄 역할을 급증시켰다. 어쩌면 이전부터 있었던 돌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런 코로나19 사태에서 돌봄공동체는 이웃이 가족이 되어 함께 아이를 키우며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수놓음 돌봄을 실천했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고유의 조건 없는 나눔인 수놓음 정서를 담아 지역

사회의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올해 돌봄공동체는 68팀이 선정되어 활동했다. 총 419참여자족 중 한부모·다문화·장애아 등 돌봄 취약가족은 74가족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코로나19에도 공동체 활동은 도움이 됐다는 96.8%의 높은 응답률이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부모역할을 나누며 양육자의 피로해소, 자녀의 온라인 학습지도 등 돌봄의 필요를 채워갔음을 말해준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했듯이 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올해 보여준 수놓음 돌봄 사업은 앞으로 또 다칠 수 있는 위기에 대응하며, 마을 안에서의 돌봄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새로운 돌봄 체계 개편을 위해 논의할 때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도 제2공항 소책자 ‘관권홍보’ 논란

“내부 직원 교육용이다”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이렇게 추진됩니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제작해 제2공항 추진 상황을 알리는 것을 두고 ‘관권홍보’라는 논란을 자초.

소책자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쟁점 등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양 행정시와 일부 단체에 배부.

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추진되던 것으로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주민 배부와 관련) 일부 단체에 배부된 책자가 주민들에게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해명.

이태윤기자

경관심의위원장 결국 사퇴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가 겸직 논란이 일었던 제주도 경관심의위원장 사퇴 사실을 공개.

26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안 심의 자리에서 위원장 사퇴 여부를 묻자 “이사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지난 월요일(23일) 사퇴했다”고 언급.

이 이사장은 이날 재밋섬 매입 타당성 검토위의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는 도의회의 지적에 대해선 “12월 초 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고 침언.

진선희기자

시설관리직 비하 논란 사과

○…지난 10월 행감에서 시설관리직별 비하 논란을 빚은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이 사과 입장을 표명. 고 국장은 26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202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제 발언으로 목묵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자존심이 상했으리라 생각한다. 미안한 마음”이라고 언급.

다만 고 국장은 “도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 3명에게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며 “모든 분들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

송은범기자

사설

렌터카 총량제 ‘우왕좌왕’… 감차 유지해야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 정책이 ‘우왕좌왕’입니다. 업체와의 법적 다툼에서 잇따라 패하고, 감차는 중단됐는가 하면 관광여건 변화로 재수요 조사를 통한 증차마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도민들의 공감속에 도입된 렌터카 총량제는 감차 기조 변경에 신중해야 합니다.

제주지법은 지난 24일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2곳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업체가 작년 5월 제주도의 감차 요구를 거부했다가 렌터카 운행 제한 명령을 받아 자 소송을 제기해 이긴 겁니다.

도는 이에앞서 렌터카 총량제 관련 다른 소송에서도 번번이 패했습니다. 도가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른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으로 감차에 나섰고, 업체측이 2018년 9월 감차시행 이전 무더기 증차 신청한 걸 반려한 것을 두고 소송전에 휘말려 끝내 도의

패소로 나왔습니다. 소송전으로 감차도 중단상태입니다.

도는 결국 2018년말부터 현재까지 감차대수가 목표의 절반도 안된 3100여대에 그쳤고, 2년만에 증차까지 고려한 재수요조사 용역에 나섰습니다. 그간 교통·관광여건의 많은 변화에다 렌터카 부족민원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도민 입장에서선 어리둥절할 정도로 총량제 정책이 ‘우왕좌왕’입니다.

도가 렌터카 총량제에 대해 사전 법적인 검토 등을 충실하게 못했고, 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허술한 정책내용을 담았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제와서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증차를 고려한 용역추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내 곳곳마다 연일 차량 제증으로 몸살을 앓는 현실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대중교통 준공영제속의 관광지 순환버스 활성화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내 렌터카 총량제는 감차 기조 속에 지켜져야 마땅합니다.

국토부는 제2공항 갈등 해결 의지 있다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가 왜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지 어리둥절케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을 따르겠다고 국토부가 또 판소리를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뜬금없이 기존 제주공항 확충은 안전상 무리가 있다고 제차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25일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존 제주공항 확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제주공항은 체계적으로도 가장 혼잡할만큼 포화된 상태로 무리한 확장 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제주공항 확장은 곤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도민사회 일각에서 제2공항 대안으로 제시했던 제주공항 확장에 대해 국토부는 채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못박았습니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와 같은 입장입니다. 현 제주공항 확장은 불리하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이

무산된다면 완전히 새롭게 공항인프라 확충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추진단장은 “제주공항을 만약에 확장하더라도 새로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현실점에서 선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월 국토부가 제주도 차원의 도민의견을 수렴할 경우 수용하겠다고 밝힐 때만 해도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도민의견 수렴 방식을 놓고 큰 입장차를 드러내 갈수록 접점 찾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만이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여섯 장을 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원지사는 최근 제2공항 여론조사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며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수렴하겠다는 도민의견은 원지 모릅니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 고

박상언(제주로지스틱스) 아버지 밀양박공 재호(前 제주감귤연구소. 향년 63세)께서 서기 2020년 11월 26일 09시 32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1월 27일(금요일)
▶발인일시: 2020년 11월 28일(토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양지공원

부 인 임 이 란

아 들 박 상 언

상 준

※연락처 : 임이란 010-3694-6974
박상언 010-9959-4004
박상준 010-2669-2612

분실공고

▶ 분실물 종류 : 골프 회원권

▶ 회원권 번호 : E06-12-3097

상기 회원권을 분실하였기에 분실물에 대한 무효 공고합니다.

2020. 11. 27일

위 공고인 (주)캐슬렉스 제주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3279

병역법위반

• 피 고 인 박 성 혁

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1. 26.

판사 서 근 찬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3301

병역법위반

• 피 고 인 문 판 우

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1. 26.

판사 서 근 찬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3109

병역법위반

• 피 고 인 이 동 욱

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1. 26.

판사 서 근 찬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792

병역법위반

• 피 고 인 배 우 리

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1. 26.

판사 서 근 찬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3090

병역법위반

• 피 고 인 정 진 혁

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1. 26.

판사 서 근 찬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075

사기

• 피 고 인 강 봉 준

위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1. 26.

판사 서 근 찬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024

사기등

• 피 고 인 이 은 철

위 피고인은 사기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1. 26.

판사 서 근 찬